

창세기 2

II. 족장시대 (창 12-23 장)

장수와 주제	사실(Fact)	의미(Meaning)	적용(Application)
12-23 장 아브라함	<p>믿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시작된다.</p> <p>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대 약속을 하셨다. (땅, 큰 민족, 복의 통로)</p> <p>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한다.</p> <p>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다.</p>	<p>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완벽함이 전제조건이 아니라 있던 자리를 떠남이다.</p> <p>하나님의 약속은 한 순간에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루어진다.</p> <p>믿음은 갈등의 시간을 거쳐 절정의 단계에 이른다.</p> <p>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, 그가 하시는 일은 언제나 바르고 선하시다.</p>	<p>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?</p> <p>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더디다고 조급해서 스스로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?</p> <p>고통과 갈등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방법은 무엇인가?</p> <p>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가 다 가져 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가?</p>
24-26 장 이삭	<p>이삭은 싸움보다 평화를 택하여 열심히 우물을 판 사람이었다. (에섹, 싯나, 르호봇)</p>	<p>하나님의 언약은 소극적 성격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.</p>	<p>소극적 성격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감사가 있는가?</p>
27-35 장 야곱	<p>떡과 팔죽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,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.</p>	<p>복에 주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적인 삶을 산다.</p> <p>인생은 부메랑이다. 그러나 자기보다 속임수의 고수를</p>	<p>나에게는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혹시 남아있지는 않는가?</p>

	<p>살의에 찬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피신한 사람</p> <p>압복 나루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한 사람</p> <p>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된 사람</p>	<p>만난다. (레아 사건과 품삯 변경 사건)</p> <p>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를 깨뜨리기 위해 홀로 남게 하신다. (병상, 실패의 자리)</p> <p>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, 하나님은 약해져서 그를 붙잡을 때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.</p>	<p>나를 깨뜨리기 위한 속임수의 고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?</p> <p>인생을 살면서 혼자 외롭게 남게 된 압복 나루는 어디였는가?</p> <p>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,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?</p>
<p>37-50 장 요셉</p>	<p>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</p> <p>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</p> <p>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승격한 사람</p> <p>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한 사람</p>	<p>꿈은 고난의 터널을 통해 성숙해 간다.</p> <p>형통할 때 유혹이 온다. 성적 유혹은 이기려하지 말고 피하라.</p> <p>잊혀진 시간 뒤에는 반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.</p> <p>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다.</p>	<p>나는 고난의 이유를 남의 탓으로 생각하는 편인가, 아니면 나의 성숙의 기회로 보는 편인가?</p> <p>형통할 때 방심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?</p> <p>모두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. 역경 너머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?</p> <p>남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?</p>